

신증후군에 동반한 대동맥 혈전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안병무 · 이동훈 · 오숙의 · 조정래 · 최성훈 · 이남호 · 이영기 · 노정우

Aortic Thrombosis Associated with Nephrotic Syndrome

Byung Moo Ahn, Dong Hun Lee, Sook Eui Oh, Jung Rae Cho
Sung Hun Choi, Nam Ho Lee, Young Ki Lee, Jung Woo N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서론 : 신증후군 환자의 3-44%에서 혈전색전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은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혈전색전증의 발생기전은 아직 분명치 않으나 hemoconcentration과 antithrombin, free protein S, plasminogen의 감소, 혈소판 활성화와 fibrinogen 증가로 인한 혈액응고 이상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전색전증의 대부분은 정맥에서 나타나며 동맥에서 관찰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다. 특히 대동맥 혈전증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저자들은 신증후군에서 대동맥과 신동맥에 혈전증이 동반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 63세 남자가 2주 전부터 두통이 지속되어 개인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심한 고혈압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한 달 전부터 거품뇨가 있었다. 과거에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병력은 없었다. 혈압은 160/90 mmHg, 맥박 96회/분이었으며 양측 하지에 경미한 함몰부종이 관찰되었다. 혈색소 15.8 g/dL, 헤마토크리트 46.3%, 혈소판 252,000/mm³이었고 PT, aPTT는 정상이었다. 생화학 검사에서 BUN/Cr 18/1.3 mg/dL, 총콜레스테롤 342 mg/dL, 총단백질 5.4 g/dL, 알부민 3.2 g/dL 이었고, 요검사는 요단백 +3, RBC 3-4/HPF로 24시간 단백뇨는 4.0 g이었다. 혈청 면역학 검사에서는 IgA 117 mg/dL, C3 102 mg/dL, C4 32.8 mg/dL로 정상범위였고, ANA, HBs Ag, anti-HIV Ab, ds DNA Ab, anti-GBM Ab, ANCA, anti-cardiolipin Ab, anti-phospholipid Ab는 모두 음성이었다. Homocysteine도 10.34 umol/L로 (정상범위: 5.0-15.0 umol/L)로 정상이었다. 복부 초음파에서는 우측 신장의 크기가 10.4 cm로 좌측 (9.3 cm)보다 약간 컸다. 심전도에서는 II, III, AVF, V2-V6에서 T파 역전이 관찰되었고, CK-MB 5.8 ng/mL (정상범위: 0-5 ng/mL), troponin-I 0.21 ng/mL (정상범위: 0-0.05 ng/mL), BNP 1,550 pg/mL (정상범위: 0-100 pg/mL)가 증가하여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하였다. 심혈관 조영술에서는 좌선회지 (left circumflex coronary artery)에 50%의 협착이 있었고, 복부 대동맥 하부와 좌측 신동맥, 양측 내장골동맥, 외장골동맥, 대퇴동맥에 혈전증에 의한 완전폐쇄가 관찰되었다. 또한 좌측 신장이 조영이 되지 않는 소견이 있었다. 혈전제거술은 시행하지 못하였고 기능적인 단일신으로 신생검은 시행하지 않았다. 현재 항응고제와 statin, ACE inhibitor 등을 투여하면서 후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인 상태이다.

Key Words : 대동맥, 혈전증, 신증후군

Aorta, Thromboses, Nephrotic syndrome